

현안과 과제

■ 2016년 투자환경 전망과 시사점
- 투자 여건 조성으로 '경기 회복의 단초' 제공

Executive Summary

□ 2016년 투자환경 전망과 시사점

- 투자 여건 조성으로 '경기 회복의 단초' 제공

■ 도입

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(1998~2007년) 평균 4.9%에서 금융위기 이후(2008~2014년) 평균 3.2%로 하락했다.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.9%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.5%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. 금융위기 이후 투자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. 지출 부문 중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(1998~2007년) 0.97%p에서 금융위기 이후(2008~2014년) 0.47%p로 하락했다.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(최종소비지출+총고정자본형성) 경제 성장 기여도는 1.60%p로 금융위기 이전(2.54%p) 대비 0.94%p 하락했다. 한편, 정부 부문(최종소비지출+총고정자본형성)의 성장 기여도는 0.54%p로 하락(금융위기 이전 0.72%p)했다. 특히, 투자 부문 중 민간 부문의 기여도 하락 폭이 정부 부문 하락 폭 보다 컸다.

■ 2016년 기업 경영 전망

국내외 경제에 관한 기업들의 전망을 보면, 첫째,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'중국 경기 둔화' 및 '미국 금리 정상화'를 지적하고 있다. 2016 세계 경제 성장세는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둘째,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5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이고 51.3%의 기업이 응답했다.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대체로 2~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. 셋째, 기업들은 2016년 국내 경제에 가장 부담을 줄 위협 요인으로 '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'와 '가계부채 증가'로 응답했다.

기업 환경 전망에서는 첫째, 국내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접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'가능하다'는 응답이 90%를 상회했다. 둘째, 기업들은 저유가 지속으로 매출감소, 장기불황 진입 우려, 경기침체 및 제조업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 개혁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.

2016년 경영 예측을 보면 첫째, 2016년 매출 목표는 상향 조정한다는 응답이 60%에 근접했고 2016년 신규 고용 규모는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80%에 근접했다. 둘째, 2016년에 기업체의 자금사정이 '2015년과 비슷할 것이다'라고 응답한 기업이 60.0% 이상을 기록했고 내수시장 규모는 '2015년 수준'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. 셋째, 2015년 주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규모는 '2015년과 동일 수준 이거나 확대하겠다'고 응답한 기업이 90%를 넘었다. 영업이익 목표는 '2015년과 동일 수준이거나 증가'하겠다는 기업은 85%를 넘었다. 또한 2016년 기업 활동의 우선 순위는 '수익성 향상'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0.8%를 차지했다. 넷째, 2016년 원/달러 환율을 '1,101~1,200원'으로 전망한 기업이 63.5%를 차지했다.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원/달러 환율이 1,050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7.3%를 차지했다. 다섯째, 국제유가가 배럴당 '20~30 달러' 수준일 거라고 응답한 기업이 43.2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.

2016년 투자 지수를 평가를 보면, 국내 주요 기업들의 투자 종합지수는 117.9로 6개월 전 108.9 대비 상승했다. 세부 지수별로 보면, 첫째, 투자 실적을 나타내는 투자추세는 6개월 전 수치 대비 상승했고 투자 의욕을 나타내는 투자 심리도 상승했다. 둘째, 투자추세지수가 2016년 104.1로 2015년 하반기 80.5 대비 23.6p 상승했고 투자 심리지수는 163.9로 6개월 전 149.6 대비 14.3p 상승했다. 셋째, 투자 대비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지수도 139.2로 6개월 전 130.8 대비 8.4p 상승했고 기업의 기업가정신은 113.0으로 6개월 전 111.7 대비 1.3p 상승했다. 넷째, 투자 여건을 나타내는 지수는 69.4로 6개월 전 71.7보다 하락했고 여전히 기준치 100미만으로 다른 지수에 비해서도 저조한 상황이다.

■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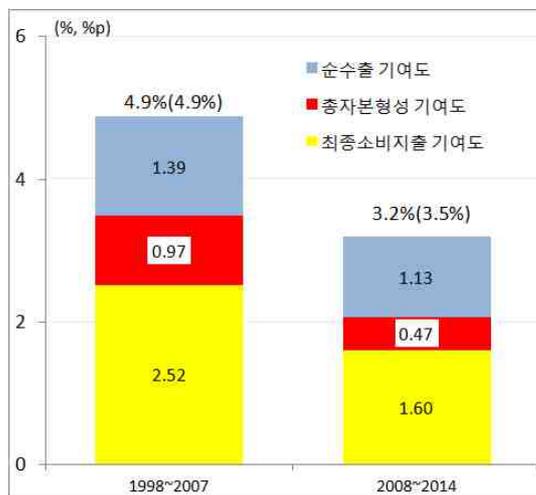
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영 불안 심리 완화와 투자 의욕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,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. 둘째, 수출경기 진작을 위해 대외 리스크 관리 및 원화 환율 및 국제원자재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. 셋째, 경기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R&D 투자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.

1. 투자 부진세 지속

○ 금융위기 이후 투자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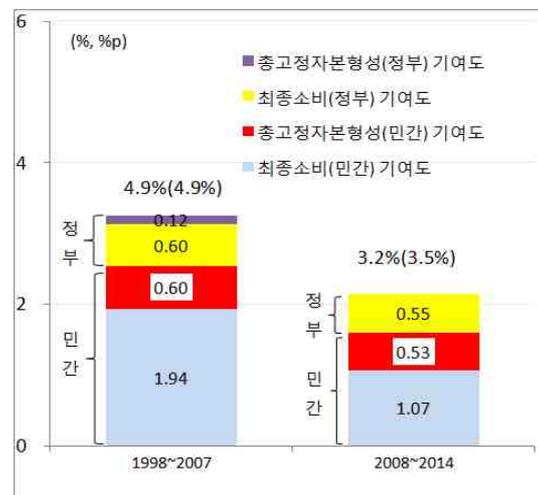
-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. 최종소비지출과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
 -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(잠재성장률)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 평균 4.9%(4.9%)에서 금융위기 이후 평균 3.2%(3.5%)로 하락함
 - 지출 부문별로 보면 순수출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상승했으나 최종소비지출의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(1998~2007년) 평균 2.52%p에서 금융위기 이후(2008년~2014년) 1.60%p로 하락
 -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(1998~2007년) 0.97%p에서 금융위기 이후(2008~2014년) 0.47%p로 하락
- 특히, 투자 부문 중 민간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 하락 폭이 정부 부문 하락 폭 보다 컸음
 - 총고정자본형성에서 민간 부문 경제 성장 기여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0.60p에서 금융위기 이후 0.53p로 하락. 정부 부문은 0.12%p에서 -0.01%p로 하락
 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(최종소비지출+총고정자본형성) 경제 성장 기여도는 1.60%p로 금융위기 이전(2.54%p) 대비 0.94%p 하락
 - 정부 부문(최종소비지출+총고정자본형성)의 성장 기여도는 0.54%p로 하락(금융위기 이전 0.72%p)

< GDP 성장률 및 지출부문 기여도 추이 > < 투자와 소비의 공공/민간 경제 성장 기여도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주 : ()안은 해당 기간 중 잠재성장률.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주 : ()안은 해당 기간 중 잠재성장률.

2. 2016년 기업 경영 전망1)

1) 국내외 경제 전망

○ (국외 경제 전반) 국내 주요 기업들은 '중국 경기 부진' 및 '미국 금리 정상화'를 세계 경제 회복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했으며, 2016년 세계 경제는 2015년과 성장세가 유사할 것으로 전망

- 세계 경제 불안 요인 : '중국 경기 둔화'와 '미국 금리정상화'로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, '신흥국 경제 및 금융 불안'과 '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'이 다음으로 큰 응답 비중을 나타냄
 - '중국 경기 둔화'를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한 기업은 29.6%의 비중을 차지하여, 국내 기업들이 2016년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또한, '미국 금리 정상화'도 전체 설문 응답의 21.1%를 차지하여, 많은 기업들이 2016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음
 - '신흥국 경제 및 금융 불안'과 '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'도 각각 전체 응답 기업의 18.4%가 불안 요인으로 응답하여 신흥국발 경제 불안과 원자재 관련 리스크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2016년 세계 경제 : 국내 다수의 기업들은 2016년 세계 경제 성장세가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응답
 - 2016년 세계 경제 성장세는 '2015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'라는 응답은 59.2%로 가장 많았고, '2015년보다 나빠질 것이다'라고 응답한 기업은 38.2%를 차지했고, '2015년보다 좋아질 것이다'라는 응답은 2.6% 기록

< 2016년 대외 불안 요인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주 : 복수 응답 기준.

< 2016년 세계 경제전망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1) 본 설문 조사 기간은 2015년 12월 17일 ~ 12월 24일(6일간)였음. 매출액 기준 국내 13개 업종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, 77개 기업이 응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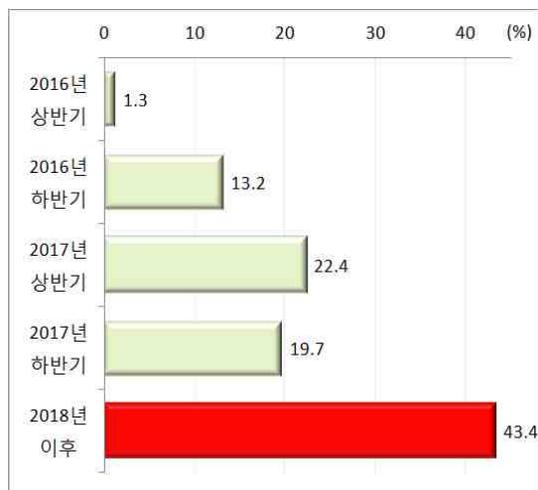
○ (국내 경제 전반) 국내 주요 기업들은 2016년 국내 경제가 2015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이고 본격적 경기 회복 시점은 2018년 이후로 응답. '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' 및 '가계부채 증가'를 가장 큰 경영 위협으로 지적

- 2016년 국내 경제 : 2016년 국내 경제는 '2015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'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응답 중 가장 많은 51.3%를 차지
 · '2015년보다 나빠질 것이다'고 응답한 기업은 47.4%이고 '2015년보다 좋아질 것이다'라고 응답한 기업은 1.3%에 불과함

- 본격적 경기 회복 시점 :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시점에 대해서 전체 응답 기업 중 43.3%의 기업이 '2018년 이후'라고 응답하였음
 · '2016년 상반기'로 응답한 기업은 1.3%, '2016년 하반기' 13.2%, '2017년 상반기'는 22.4%, '2017년 하반기' 19.7%로 나타남
 · 주요 기업들은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대체로 2~3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

- 경영 위협 요인 : 대부분의 기업들은 2016년 국내 경제에 가장 부담을 줄 위협 요인으로 '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(23.1%)' 및 '가계부채 증가(21.7%)'를 지적했음
 · '소비 부진'과 '투자 위축'은 각각 17.5%와 14.7%를 차지했으며, '금융시장 변동성 증대' 8.4%, '저유가' 4.9%, '부동산 침체' 3.5%, '재정건전성 악화' 2.8%, '엔저 지속(원화 강세)' 2.1%, 디플레이션(저물가) 1.4%의 순으로 나타남

< 국내 경제의 본격적 회복 시기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 2016년 경영 위협 요인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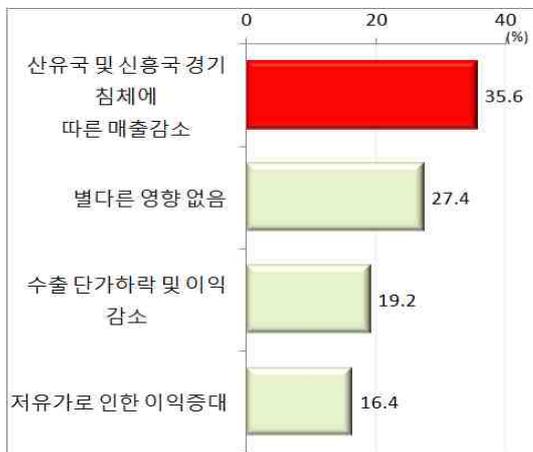
주 : 복수 응답 기준.

2) 기업 환경 전망

○ (저유가 영향, 장기불황 우려, 정치권 평가) 기업들은 저유가 지속으로 매출감소, 장기불황 진입 우려, 경기침체 및 제조업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위해 정치권 개혁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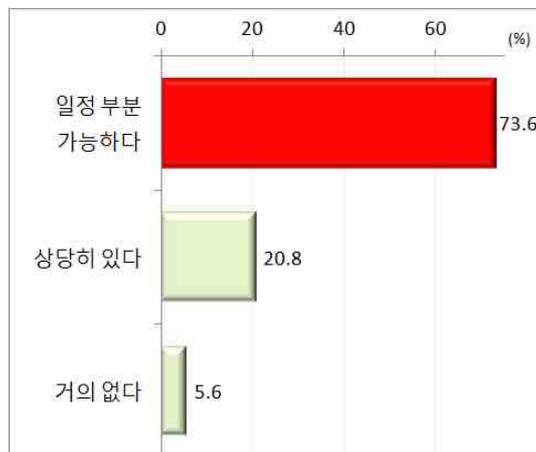
- 저유가 영향 : 저유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'산유국 및 신흥국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'로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음
 - 저유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'산유국 및 신흥국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'로 응답한 기업은 35.6% 차지
 - 다음으로는 '별다른 영향 없음' 27.4%, '수출 단가하락 및 이익감소' 19.2%, '저유가로 인한 이익증대' 16.4%로 응답. 기타는 1.4% 기록
 - '산유국 및 신흥국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'와 '수출단가하락 및 이익감소'로 응답한 비중이 54.8%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, 기업들은 저유가로 인한 세계 및 국내 실물경기 회복 정도가 미흡할 것으로 전망
- 국내 장기불황 진입 가능성 : 국내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접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'일정 부분 가능하다'라는 응답이 73.6%로 가장 많았음
 - '상당히 있다' 20.8%, '거의 없다' 5.6% 기록
 - '일정 부분 가능하다'와 '상당히 있다'의 응답이 94.4%로 기업들은 장기 불황 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

< 저유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 국내 장기불황 진입 가능성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- **정치권(국회) 활동 평가** : 경제부문 관련 법안만으로 판단할 때 국내 정치권(국회)의 활동 점수는 'C'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
 - 경제부문 관련 법안만 놓고 봤을 때 국내 정치권의 올해(2015년) 활동은 'C'라는 응답이 35.1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
 - 다음으로는 'D' 31.1%, 'F' 17.6%, 'B' 16.2%의 순으로 나타남
 - A~F 중에서 'C'이하로 평가한 응답 비중이 83.8%를 차지

- **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** : 경제분야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'경제문제를 정쟁에 활용'이라는 응답이 33.3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
 - 두 번째로 '경제위기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'이 22.0%를 차지
 - 다음으로는 '반기업정서 팽배' 12.9%, '복지 등 포퓰리즘 법안 양산' 11.4%, '법인세 인상 추진 등 투자저해' 9.8%, '규제강화 일변도' 9.1%의 순으로 나타남. 기타로 응답한 비중은 1.5% 기록

- **개혁이 필요한 부문** : 경기침체 및 제조업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'정치권'이라는 응답이 44.6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
 - '정부'라고 응답한 기업이 35.1%, '노동계' 16.2%, '사회시민단체' 1.4%의 순으로 나타남. 기타로 응답한 비중은 2.7%

- **인수합병, 사업재편, 인수종 사업 진출 필요성** : 대형 인수합병(M&A)이나 사업재편, 인수종 사업 진출에 대한 필요성은 '다소 강해질 것이다'라는 응답이 56.8%로 가장 많았음
 - '2015년과 비슷한 것이다' 21.6%, '매우 강해질 것이다' 14.9%, '다소 약해질 것이다' 6.8%의 순으로 나타남

3) 2016년 경영 예측

○ (2016년 매출 및 고용 전망) 2016년 하반기 매출 목표는 상향 조정한다는 응답이 60%에 근접했고, 신규 고용을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80%에 근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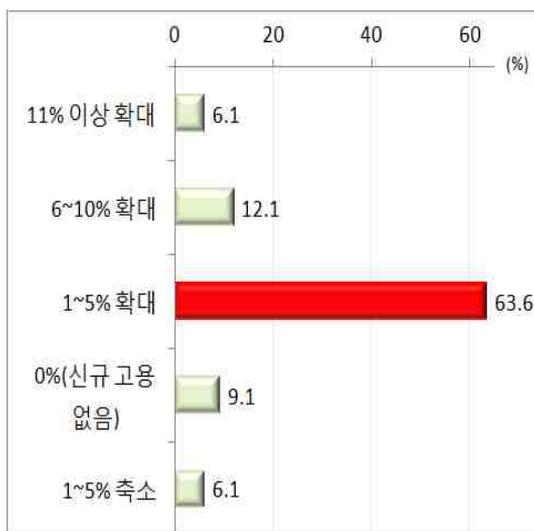
- 2016년 매출 목표 : 2016년 매출 목표는 '1~10% 정도 상향할 것이라고' 응답한 기업이 전체 응답의 43.5%를 차지
 - 2016년 매출 목표를 '1~10% 축소' 하겠다는 응답은 23.2%, '11~19 정도 축소'와 '20%이상 축소' 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각각 1.4%,
 - '1~10%정도 상향' 하겠다는 응답은 43.54%, '11~19%정도 상향' 8.7%, '20%이상 상향' 7.2%를 차지함
- 신규 고용 규모 : 2016년 신규 고용 목표는 2015년 대비 '1~5%'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이 63.6%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냄
 - '11% 이상 확대'로 응답한 기업 6.1%, '6~10% 확대'로 응답한 기업 21.1%, '신규고용 없음(0%)'으로 응답한 기업 9.1%, '1~5% 축소' 하겠다는 기업은 6.1%로 나타남
 - 신규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78.8%를 차지

< 2016년 매출 목표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 2016년 신규 고용 규모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○ (2016년 자금 및 내수 시장) 2016년에 기업체의 자금 사정이 '2015년과 비슷할 것이다'라고 응답한 기업이 60% 이상을 기록했고, 내수시장 규모는 '2015년 수준'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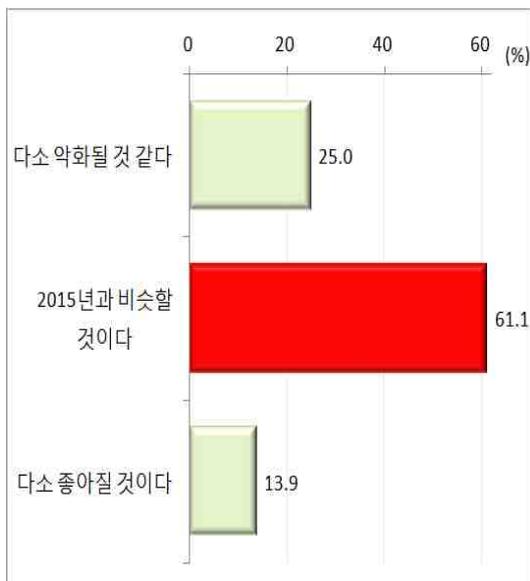
- 2016년 자금사정 : 주요 기업들은 자금사정이 '2015년과 비슷할 것이다'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61.1%로 가장 비중이 컸음

- 2016년 자금 사정이 '다소 악화될 것이다'라고 보는 기업은 25.0%를 기록
- 한편, '다소 좋아질 것이다'라고 응답한 기업은 13.9%를 차지

- 2016년 내수 시장 규모 : 각 업체가 속한 내수시장 규모에 대해서 '2015년 수준(0%)'일 것이라는 응답이 44.6%로 가장 많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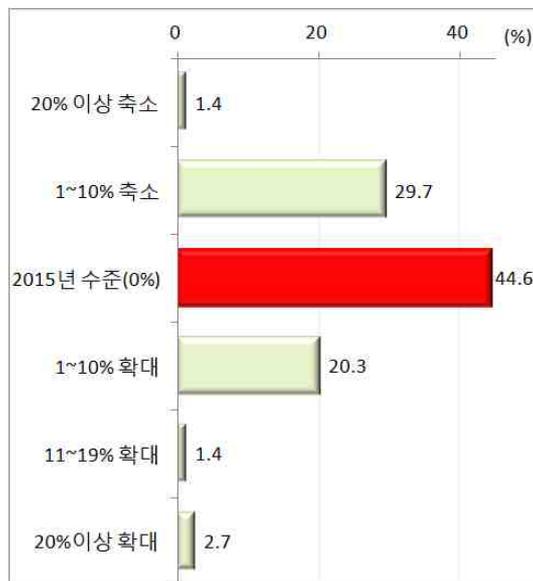
- 반면 '1%~10% 축소'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29.9%, '20%이상 축소'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1.4%를 차지
- '1%~10% 확대' 및 '11%~19% 확대'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20.3%, 1.4%를 차지

< 2016년 자금사정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 2016년 내수시장 규모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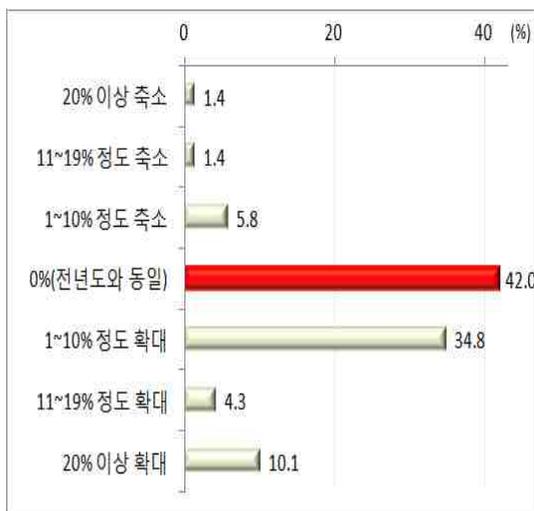
○ (2016년 투자 및 영업 목표) 주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규모는 2015년과 동일 수준(0%)이거나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이 90%를 상회하고, 영업이익은 '2015년과 동일 수준이거나 1~10%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85%를 상회함

- 설비투자 : 2016년에 설비투자 규모는 '전년도와 동일 수준(0%)'라는 의견이 42.0%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
 - '1~10% 정도 축소'라는 응답은 5.8%, '11~19%정도 축소' 1.4%, '20%이상 확대' 1.4%, '1~10%정도 확대' 34.8%, '11~19%정도 확대' 4.3%, '20% 이상 확대' 10.1%를 기록

- 영업이익 : 2016년 영업이익 목표 역시 '1~10%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47.1%로 가장 많았음
 - '20%이상 감소'로 응답한 기업은 5.7%, '11~19%정도 감소' 1.4%, '1~10% 정도 감소' 7.1%, '전년도와 동일(0%)' 20.0%, '11~19%정도 증가' 47.1%, '20% 이상 증가' 12.9%를 차지

- 2016년 기업 활동의 우선 순위 : '수익성 향상'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0.8%로 가장 많았음
 - '기업 경쟁력 강화'로 응답한 기업은 31.6%, '비상경정체제 유지' 10.5%, 'M&A 등 신사업 진출' 9.2, '매출 증대' 5.3%, '투자 확대' 1.3%, '중소기업과 상생 경영' 1.3%의 순으로 나타남

< 2016년 설비 투자 규모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 2016년 영업이익 목표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○ (환율 및 손익분기점 환율, 국제유가 전망) 손익분기점 원/달러 환율이 1,000원이라는 응답이, 국제유가는 배럴당 20~30 달러'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

- 원/달러 환율 : 전체 응답 중 63.5%의 기업들은 2016년 원/달러 환율을 '1,101~1,200원'으로 전망

· 2015년 1월~12월 30일까지 원/달러 환율(일일 종가기준)은 평균 1,130.0원임

원/달러 환율	901~1,000원	1,001~1,100원	1,101~1,200원	1,201~1,300원	1,301~1,400원
비중(%)	1.4	9.5	63.5	24.3	1.4

- 원/달러 손익분기점 환율 :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환율 수준에 대해서 29.5%의 기업이 1,000원 수준으로 응답

· 950원으로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중 8.2%, 900원은 4.9%를 차지

· 한편 1,050원 16.4%, 1,100원 18.0%, 1,200원 11.5%, 1,250원 1.6%를 차지

·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환율을 1,050원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이 57.3%를 차지

손익분기점 원/달러 환율	900원	950원	1,000원	1,050원	1,100원	1,150원	1,200원	1,250원
비중(%)	4.9	8.2	29.5	16.4	18.0	9.8	11.5	1.6

- 국제 유가 전망 : 전체 업체의 43.2%의 기업이 2016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20~30달러 수준으로 응답

· '10~20 달러'로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중 17.6%

· '30~40 달러'로 응답한 기업은 25.7%, '40~50 달러' 12.2%를 차지

· '50달러 이상'으로 응답한 기업이 1.4%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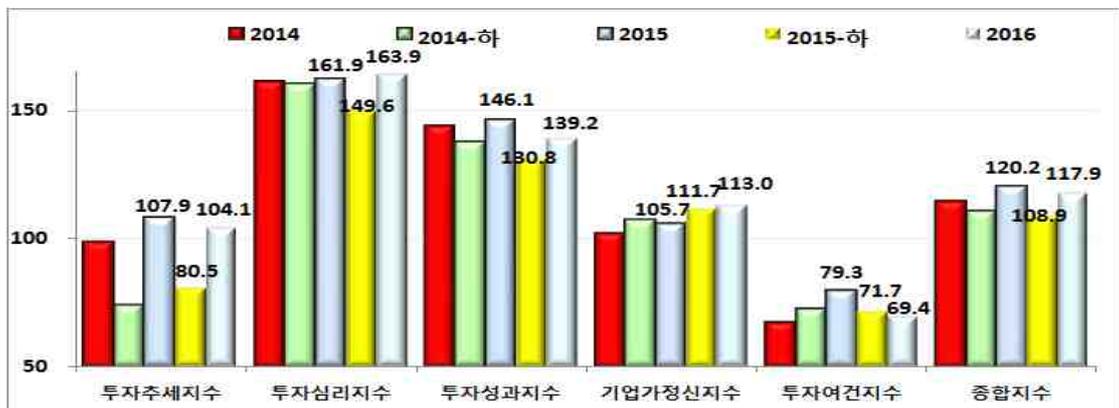
국제 유가 (달러/배럴)	10~20달러	20~30달러	30~40달러	40~50달러	50달러 이상
비중(%)	17.6	43.2	25.7	12.2	1.4

3. 기업투자지수 평가

○ 2016년 투자 종합지수는 2015년 하반기 대비 상승하였고, 기업들의 투자심리와 기업가 정신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투자 여건 수준이 여전히 미흡

- 종합지수 상승 : 국내 100대 주요 기업들의 투자와 관련한 전반적인 지표가 2016년 수치가 2015년 하반기 대비 상승
- 지수별 평가 : 2016년 기업들의 투자심리와 기업가 정신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투자 여건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여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 확대에 나서기 힘든 상황
 - 투자 실적 상승 : 올해(2015년) 진행되고 있는 투자는 2014년 보다 다소 늘었고, 2016년에 대부분의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증가와 감소 계획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
 - 투자 심리 양호 : 기존 투자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욕이 강하고, 경기 부진에도 투자 지속에 대한 의지도 높은 수준
 - 투자 대비 성과 개선 : 2015년 투자대비 성과는 좋았으며, 향후에도 투자대비 성과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
 - 기업가정신 소폭 상승 :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욕은 높으나, 리스크가 클 경우 투자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
 - 투자 여건 개선 미흡 : 2015년 하반기 대비 투자여건지수는 하락. 기업들은 현재 투자 여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, 향후 투자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

< 기업투자지수 추이 >



주 : 1) 2014년 투자지수 조사는 2013년 12월 9~13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.
 2) 2014년 하반기 투자지수 조사는 2014년 6월 20~27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.
 3) 2015년 투자지수 조사는 2014년 12월 18일~24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.
 4) 2015년 하반기 투자지수 조사는 2015년 6월 18~24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.
 5) 2016년 투자지수 조사는 2015년 12월 17일~24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.

4. 시사점

- 설문조사 결과로 보면 기업들은 2016년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으로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되어, 규제 완화,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적극적인 투자 여건 개선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
- 기업 투자가 위축될 경우, 국내 경제 회복력이 저하되고 고용이 감소하는 등 미국 경제 회복 등 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회복 지연 우려

첫째,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세 강화를 도모

- 기업들은 2017년 하반기에 가서야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, 2016년 하반기 경제 정책의 주된 방향이 '가계부채 안정화', '국내 소비 제고', '투자 활성화'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
-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걸림돌로 지적되는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심리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할 것임
- 투자여건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,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 확대를 유도
 -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를 통한 경제순환 고리형성(투자 확대 → 기업 수익성 향상 → 고용 확대 → 국민경제 활성화)의 단초를 제공

둘째, 수출경기 진작을 위해 대외 리스크 관리 및 원화 환율 및 국제원자재 안정에 주력

-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원/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서 57.3%의 기업이 1,050원 수준 이상으로 응답
 - 원/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63.5%의 기업이 '1,101~1,200원'으로 전망
- 기업들이 환율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미세 조정 및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저유가로 인한 산유국 및 신흥국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등 국제원유 리스크에 대하여 국제공조 강화 등 대책 필요

셋째, 경기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R&D 투자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추진

- 미국 등 세계 경기의 회복에 대응하여 설비투자를 확대하고,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
- 적극적인 R&D 투자와 신사업 투자를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적극 발굴, 육성해야 함

임희정 연구위원 (2072-6218, limhj9@hri.co.kr)
 홍유립 연구위원 (2072-6243, ylhong@hri.co.kr)